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역 맞춤형 전문가 양성교육 '팜앤비즈' 본격 실시

- 지역주민·소상공인·농가 대상, 10주간 전문교육 운영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팜앤비즈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가(farm)과 사업(business)를 합친 ‘팜앤비즈’ 교육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산업을 개발하고 지역민·소상공인·농가의 자생식물 활용 사업의 역량을 함양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재배·관리, 식물 활용, 식물유통 분야의 국내 유명 강사진들로부터 자생식물에 대한 생산부터 활용까지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자생식물 팜앤비즈 전문가 양성 교육은 지역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수목원과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에 대해 지역 지자체·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구본광 (054-679-0901)
	서비스본부 교육운영실	담당자	주 임	김경민 (054-679-091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월 26일 진행한 '2025 자생식물 팸플릿 전문가 교육과정' 1회차 교육후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